

전북형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박차

‘한국체험 1번지, 전북도’ 통합브랜드 개발 · 11월 전북투어패스 도내 14개 시군 확대 적용

전북도가 전북형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한데 묶어 관광패스트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이른바 ‘전북투어패스’를 전주 시와 완주군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최종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또 각 시군별 특화된 관광 명칭을 확정하고 브랜드를 통합해 전 방위 관광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 통합브랜드 개발에 이어 빠르면 오는 11월 전북투어패스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맹점(자유이용시설,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특별가맹점)을 점검하고 있고 온-오프라인 판매처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이밖에 도는 개발된 브랜드를 전북투어패스 카드 제작, 전북순환관광버

스와 외국인전용셔틀버스 래핑 광고, 14개시군 관광안내소, 전북투어패스 판매소, 특별가맹점 등에 표식을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관광객이 전북투어패스를 쉽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체복을 비롯해 휴대전화 케이스, 소형 이동저장장치(USB), 명함 제작 시 등에도 통합브랜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투어패스 브랜드는 14개 시군과 연계하고 확장성 높은 브랜드 네임으로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하나된 전라북도 관광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라북도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통해 전북관광(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일 전주전통문화관 놀이마당에서 송하진 지사를 비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 통합브랜드

롯해 도내 국회의원, 14개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체험 1번지 전라북도’란 이름의 토탈관광 전북투어패스 브랜드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토탈관광시스템의 핵심 사업인 ‘전북투어패스’ 브랜드 개발의 의미와 함께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와 14개 시군별 특화 브랜드가 각각 공개됐다. /신광영 기자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가예산 추가반영 필요사업 도정현안 · 시군별 현안 논의

도내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2017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과 도정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도는 지난 5일, 전주전통문화관 경영당에서 지역 국회의원 10명, 송하진 도지사 및 실국장,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7년 국가예산 추가반영 필요사업 및 도정현안 해결방안 논의와 14개 시군별 현안사업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추가반영 필요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재부에서 지방비 부담요구, 법령개정요구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 새만금 관련 사업, SOC 및 성장동력사업, 예타통과와 함께 사업추수가 필요한 사업,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사업 등이다.

또 14개 시장·군수는 시군별 2개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기재부가 현재 미



지난 5일 전주전통문화관에서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결·쟁점사업을 심의 중으로, 올해는 SOC를 비롯한 농업산업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새만금 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은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어느 해보다 정치권과 도·시군의 공조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5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암 발견 시 국가암 의료비 지원대상... 3년까지 연속지원

전북도가 위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 5일 도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위암과 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 조기검진 홍보를 벌이고 있다.

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도 암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있다.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 만50세 이상 남녀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이다.

검진주기는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이며 대장암은 1년, 간암(간암발생고위험군)은 6개월이다.

올해 검진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암 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암 발견 시 국가암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며,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암 조기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검진대상자 모두가 5대 암 조기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

김은희 여성가족부장과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이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에 추진 중인 부안 새만금 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6일 김은희 여성가족부장과 아프리카·아랍·인태아메리카·유라시아·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35명이 부안을 찾아 2023년 세계잼버리 유치 예정지 및 과정 활동장을 시찰했다.

이날 김은희 여성가족부장과 세계연맹 5개 지역별 의장 및 사무처장, 인태아메리카 김은기·유라시아 김소라 홍보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종규 부안군수, 한국·전북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은희 장관과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은 이날 새만금홍보관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추진상황 및 전략,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치 예정지와 부안캠 직소천 하류·첼리자파크 등 과정활동장을 둘러봤다.

김은희 여성가족부장은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60여 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라며 “정부 차원에서 부안 새만금 유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는 청소년의 성지, 새로운 세계 문명의 도시 부안 새만금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이달 진행되는 현 자실사를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7년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최종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육수 기자

강은희 여가부장관 ·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2023 세계잼버리 예정지 새만금 방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가액(3만 원·5만 원·10만 원)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이 결국 국무조정실로 넘어 가게 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오후 2시 황성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김영란법과 관련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가액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한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

‘김영란법 가액 기준’ 이견 조정 국무조정실로

2016. 8. 1. 판사 허윤범

상속한정승인공고

전주지방법원

◇심판
사건 2016-나단587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1. 한아름(780606-*****)
주소: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09
송달장소: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43, 법무사 최병선
피상속인 망 이육원(531115-*****)
2016. 4. 2.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40, 206동 1102호(인후동 1가, 부영아파트)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이육원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6. 7. 6.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상속재산목록

1. 직속재산
가. 부동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698-10 일아 98㎡(개별지가 187,180원)
나. 건설기계: 전북02사5523 굴삭기, 2006 연식

2. 소속재산
가. 가압류채권자: 박경례
채무액: 69,840,681원
채무의 종류: 손해배상청구
발생일: 2011. 01. 10.
나. 압류채권자: 북전주세무서
채무액: 0원
채무의 종류: 국세채납
발생일: 2015. 07. 07
다. 저당권자: (주)기온캐피탈
채무액: 55,000,000원
발생일: 2006. 07. 05
상기 외 구체적 내용 알 수 없음.